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함평천지한우 세계 속 하늘을 날다



함평축협, 홍콩·마카오 수출 선적식 가져 “명품한우 브랜드 높이는 데 노력할 것”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은 1일, 농협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함평천지한우를 홍콩 및 마카오로 수출하는 첫 해외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희구 함평축협 조합장과 임원,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수출업체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축협은 현지 대형 유통사 'parkshop' 과 2마리 분량의 함평천지한우 전 부위를 지속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엇보다 향후 한우 해외수출시점에서 해외 바이어와 한우 브랜드 간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전례

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함평축협이 해외 바이어의 한우 특정부위 구매요구로 국내 수출브랜드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해외 판로를 개척코자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결과물이다.

함평천지한우는 150여명의 회원 농가에서 16,500여두의 고급육 한우를 환경 친화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함평축협이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된 맞춤형 사료를 급여해 한우고기 고급육 등급 출현율

90%(전국평균 86%)에 이르는 성적을 보여 압도적인 품질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보여 주듯 함평천지한우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회 연속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각종 브랜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조합장은 “이번 홍콩/마카오 수출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공략을 펼쳐, 명품한우 브랜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함평천지한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며, 함평축협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결과는 함평군의 집적적인 한우산업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이에 안병호 함평군수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도 함평군이 축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함평=김광찬 기자

“스마트 행정, 장성군이 선도해요”

사물인터넷 이용 ‘행정편의 앱’ 발명특허 출원

장성군이 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선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총무과 신형기 주무관은 지난해 컴퓨터시스템 통합 지원 및 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인 (주)엠투온과 함께 ‘비콘을 이용한 시설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의 실행방법’이라는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비콘은 블루투스4.0 프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로 전력 소모가 적어 모든 기기가 항상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구현에 적합하다.

장성군은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스마트 비즈니스 솔루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은 비콘 기능을 활용해 각종 교육장에 입장할 때 휴대전화의 소리 모드를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자동으로 변경하는 시스템

를 개발했다. 특히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해 최근 1차 시제품까지 개발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스마트회의 시스템 앱의 이름은 ‘썬’이다. 이 앱은 각종 교육이나 회의를 열 때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무음이나 진동으로 자동 변경해준다. 또 교육 및 회의 참석자들의 출석 여부를 파악해 자동으로 출결을 관리해준다. 교육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로 곧바로 다운로드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도 갖췄다.

군의 사물인터넷 기술은 장성군정을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썬’ 앱을 ‘세계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자 참석 행사에 적극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농림축산 식품사업 신청·접수

신안군에서는 오는 3월 2일까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업·농촌분야 38개, 식량분야 6개, 유통·원예·식품분야 53개, 축산분야 12개, 산림분야 16개 총 125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3월 2일까지 신청하고, 읍면이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녹지과, 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은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서 등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 정보화마을 설맞이 인터넷 특관행사 개최

영광군 정보화 마을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역 특산품을 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특관 행사를 개최한다.

명절 선물로 변함없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광꿀버리를 판매하고 있는 굴비마을에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3~10만 원대로 다양하게 준비하여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용암마을에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모싯잎송편을 비롯해 꿀, 아로니아분말 등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굴비정보화마을은 인터넷 사이트 <http://gulbi.invil.org> 용암정보화마을은 <http://yongam.invil.org>를 방문하면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주문할 수 있다.

한편, 전남 19개 시군, 37개 정

보화마을이 참여하는 ‘2018년 설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가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우수 농수산물 현장 할인은 물론이고, 고품질축, 시식회 등의 이벤트가 함께 운영되며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의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관광시설·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안전점검



보성군은 오는 5일부터 3월 30일

까지 54일간 안전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대진단은 관광시설,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상 520여개소의 구조적 분야를 비롯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안전관리 대상 전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

특히,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각 시설 담당부서를 포함한 보성군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체점검은 물론 공무원·민간 전문가 등 민간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대진단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및 행정 지도를 통해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인기 고공행진

고흥분청문화박물관서 매주 주말 운영…매진사례

‘고흥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고흥의 명소,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매주 주말에 운영 중인 ‘고흥 분청사기 만들기’ 프로그램이 매진사례를 만들며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의 특징을 살린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고흥 분청사기 만들어보기’ 프로그램은 매 체험마다 정원 인원을 가득 채우며,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인기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고

흥 분청사기 만들어보기’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 오후 2시~4시에 운영하며 체험비는 10,000원으로 제작 후 30일 후에 배송된다.

이 외에 ‘고흥군 퍼즐 맞추기’와 ‘페이퍼토이 만들기’, ‘캐릭터 우드 만들기’ 등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시길 권유했다.

상세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고흥군청 및 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신청은 유선(061-830-5555, 5991)로 가능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공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지문번호서)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